

내년 초등교 중간·기말고사 완전폐지

도교육청 “과정중심평가 차근차근… 올해 1~4학년 폐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일제식 지필고사인 중간·기말고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일제식 지필고사가 치러지는 곳은 28곳(5~6학년 대상)이다.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 1~4학년의 일제식 지필고사가 폐지된 가운데 내년부터 폐지 대상이 5~6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횡수를 줄이는 등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현재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는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교과목의 지필평가 횟수가 학기당 1~2회로 되어 있다.

과정중심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로 알려져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의 교육과

정 재구성 및 평가계획에 따라 진단, 형성, 총괄평가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현행 지점상의 지필·수행평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평가 방식이 교수·학습이 끝나는 지점에 이뤄지고,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치러지는 지필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시로 이뤄지고 주안점은 학생 진단 및 피드백 제공에 두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를 추구하는 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시즌 2’ 공약과제로 ‘과정중심평가 정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중·고교원 550명의 직무연수를 마쳤으며 향후 매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과정중심 평가 정착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과정중심 평가의 시행으로 미래대비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의 자기표현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올 추석 가장 둥근달 25일 새벽 뜬다

한국천문연구원 설명

올 추석 가장 둥근 보름달은 추석 다음날인 25일 새벽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올 한가위(9월 24일) 보름달이 서울 기준 오후 6시 19분에 뜬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4일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19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25일 0시 10분이다.

하지만 이 때 달은 아직 완전히 둥근 모습이 아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망월)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날인 9월 25일 오전 11시 52분이다. 이때는 달이 진 이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5일 새벽(월출 직전)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한국천문연구원은 밝혔다.

보름달이 항상 완전히 둥글지 않



은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방향(합삭)에서 태양의 정 반대(망)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천문연구원은 설명했다.

참고로 음력 1일은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을 지나가는(합삭) 시각이 포함된 날이며 이 날부터 같은 간격(24시간)으로 날짜가 배정된다. 그렇지만 달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는 때(망)까지 실제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둥근달은 음력 15일 이전 또는 이후가 될 수 있다.

조상윤기자

태풍 ‘솔릭’ 재난지원금 제주시 추석전 지급 방침

제주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이어진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주택 30동과 농경지 2912ha가 침수됐다. 또한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의 피해도 발생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 2457명에게 41억여원을 오는 21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기로 했다.

제주시는 주택·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명에게 13억여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명에 대하여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최대 65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어·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손정경기자



제주의 가을 느끼는 관광객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18일 가을의 정령인 코스모스꽃이 활짝 핀 제주시 조천읍 외산리를 찾아 완연해진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제주관광시장 추석연휴 ‘반짝 특수’

도관광협회 “예약률 호텔 80%·렌터카 70% 수준”

연휴기간 20만여명 방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관광업종을 중심으로 추석 반짝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말인 22일부터 추석 대체휴일인 26일까지 5일간 도내 주요 관광업종별 예약률을 잠정 집계한 결과 호텔과 콘도미니엄 예약률이 78~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렌터카 예약률은 업체별로 적게는 67%에서 많

게는 70%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예약률은 평소 주말에 견줘 10~20%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제주도관광협회는 전했다. 반면 펜션, 리조트 예약률은 40~43%, 전세버스는 30~35%로 비교적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엔 평소와 달리 수학여행단과 같은 단체 관광의 방문 비중이 떨어지고 개별 관광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을 주요 고객층을 삼는 업종에선 예약률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찾은 귀

성객과 관광객이 즐거운 추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 제주공항 등에서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0만5536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날짜별 방문 예상 인원은 22일 4만5116명, 23일 4만4607명, 24일 3만9613명, 25일 3만8027명, 26일 3만8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6505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4.6% 증가한 규모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추석연휴 6개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도, 응급진료 종합대책상황실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건강하게 추석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2~26일 5일간 제주도와 각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진료종합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6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며, 지역별 당직의료기관 394개소와 휴일지킴이약국 137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 도내 6개 보건소는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진료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이용 가능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시·도 홈페이지 또는 1

19 구급상황관리센터, 도 종합상황실과 당직실, 각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여행객 등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해 연휴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음식점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주요 관광지 주변과 지역별 업소명단, 소재지 등 음식점 운영현황을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인구밀집지역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

도 17~19일 11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관광객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7~19일 건축공사장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서울 상도동에서 일어난 유치원 기둥임 사고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안전점검이다.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인구밀집지역 인근 건축공사장 중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포함 총 11개소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담당공무원, 제주자치도 건축위원회, 대한산업안전협

회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흙막이 계획 및 시공 상태 적정성 ▷주변 지반 안전 확보 여부 ▷공사장 주변 보행로 무단적치 및 기타 낙하물 위험물 등 공사현장 내의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 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법령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엄중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진행 시 대금 지급 여부 등을 파악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채해원기자

家傳忠孝 世守敦睦 제8회 나주김씨인충공파 종친회 한마음 체육대회

조상님 음덕으로 종친 여러분의 가내 행운과 건승을 축원드립니다.

왕족의 후예인 나주김씨 인충공파 종친회가 “충효정신 이어받고 세세토록 돈목하자”라는 중훈 정신을 기리고 종친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8회 나주김씨인충공파 종친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종친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 9. 30(일) 10:30~16:00 개최식 10:30

장소 애월근린체육관



종친회장
김시호



청년회장
김창희

경기종목 축구, 윷놀이, 투호, 줄다리기, 가족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버스운영 ●1호차 : 삼양농협(08:40) → 화북공단주유소(08:50) → 학생문화원(09:00) →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09:10) → 노형초등학교 (09:20) → 애월체육관
●2호차 : 제주여고 정문(08:40) → 영평마을회관(08:55) → 광령3리 마을회관(09:20) → 애월체육관

연락처 김창희(청년회장) 010-3693-2486 김형준(청년회수석부회장) 010-3699-6907 김성은(청년회사무국장) 010-5699-1816

각 공계별 회장

김광옥(위남공계) 김명식(수남공계) 김창택(두남공계) 김재홍(진남공계) 김창해(동남공계)

· 주최 : 나주김씨인충공파종친회 · 주관 : 나주김씨인충공파청년회 · 후원 : 나주김씨중앙종친회, 인경회, 부녀회